

장성군 '소상공인 氣 살리기 프로젝트'

신규 사업자·업종전환자에 年 임대료 최대 400만원 대출이자 차액 지원 등 호평...소상공인 초청 애로 청취

장성군이 경기불황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유두석 군수와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침체를 생업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

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이 시행하고 있는 '점포임대료 지원'은 신규 점포임대사업자 또는 업종전환자에게 연 최대 400만원 이내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3%와 업무협약을 맺은 6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2%를 포함해 총 5%의 대출이자를 연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를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현재까지 점포임대료 지원사업으로 212명에게 6억3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대출이자 차액 지원사업 등으로 820여명에게 3억여원을 보전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작업·음악·운동으로 치매증상 악화 방지 담양군 치매안심센터

담양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4-5일 이틀간 쉼터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통밥 만들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대덕면 달빛 무림마을에서 열린 체험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은 불려놓은 쌀과 밥, 잣, 은행 등을 넣은 뒤 물을 붓고 전통 한지로 뚜껑을 덮어 찌내는 대통밥 만들기를 체험하고 마을 곳곳을 구경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쉼터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해 치매증상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쉼터에서는 작업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인지재활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낙상방지시스템(FRA)을 이용한 낙상예방 균형 훈련, 코어강화 훈련 등 다양한 운동치료를 제공한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kwangju.co.kr



담양군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대통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상습 체납자 예금·부동산 압류

담양군 고강도 징수...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 등 강경

담양군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 고강도 징수에 나선다.

담양군은 지난 4일 실과소 및 각 읍면세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7억700만원의 56%인 9억5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2억

5300만원의 30%인 3억76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우선 고지서 발송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체납자의 경우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kwangju.co.kr

황룡강 2.2km 구간 낚시 못한다

장성군, 황미르랜드~문화대교 구간 내달부터 생태보호

장성군이 낚시객들에 의한 어족자원 남획과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한 청정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황룡강 생태환경 보호조치'에 나섰다.

장성군에 따르면 황미르랜드~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 구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낚시객 방문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황룡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성군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인 황룡강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됐다. 현재 국비를 포함해

20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강 주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황룡강 어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낚시객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경관을 해치면서 주민 민원이 잇달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더 이상 방지할 경우 황룡강 환경훼손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구간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애들아, 엄마가 영상편지 보내마"



화순 나드리 복지관, 어르신 미디어 교육 내달 2일까지 스마트폰 활용·영상촬영·편집

"직접 만든 영상편지 지식에 게 보내요."

화순군이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영상편지를 지식에게 보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미디어 교육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나드리 노인복지관에서 '올 엄마가 보낸 영상 편지' 교육을 시작했다.

첫 수업에서는 영상 제작의 도구인 스마트폰과 거리감을 좁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안내하고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습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디어 교육은 다음달 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활용 기본 능력을 키워나가 영상 촬영과 편집까지 직접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다.

교육과정은 제작한 영상을 지식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수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에는 통화나 문자 보내는 데만 스마트폰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여러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며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보내 우리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어르신이나 농촌 마을 주민의 경우 도시 지역보다 미디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게 현실이다"며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디어 교육을 꾸준히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3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화순 너랑 나랑 프로젝트'도 개강해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사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